

11,12세기 高麗 正宮의 건물구성과 배치

김 동 욱

(경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1. 머리글

고려시대 역대 왕들은 도성인 개경 시내 여러 곳에 궁궐을 갖추고 자주 장소를 옮겨 거처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러 궁궐가운데도 송악산 아래 자리잡은 궁궐은 왕조초기부터 말기까지 정궁으로 변함없는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이 송악산 아래 궁궐에 대해서 조선시대에는 그 궁궐터를 두고 滿月臺로 불렀고¹⁾ 만월대는 고려 궁궐터를 지칭하는 명칭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다.²⁾ 『高麗史』 등 고려시대 역사 기록에서는 고종 이후부터 다른 여러 이궁이나

별궁과 구분하는 의미에서 本闕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나온다.³⁾ 그 이전까지 이 궁궐은 특별한 명칭을 갖지 않은채 정궁의 지위를 유지하며 활용되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송악산 아래 자리잡은 고려 왕조의 궁궐을 다른 곳의 궁과 구분짓기 위해 편의상 정궁이라고 지칭하고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고려 정궁이 그 전성기를 지낸 것은 11세기 초 현종때부터 12세기 후반 의종때 까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현종5년(1014)에서 인종4년(1126) 사이는 왕권이 가장 안정된 시기였고 또 궁궐이 정궁으로써 그 면모를 충실히 갖춘 때였다. 그 사이 인종2년에 중국 송나라에서 사신 일행으로 온 서공은 당시의 궁궐 모습을

1 만월대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한 사례중 하나로 『新增東國輿地勝覽』을 들 수 있다. 이 책 권5, 개성부하편 고적조에 만월대에 대해 '연경궁에 있으며 정전의 앞 계단이다'는 설명을 붙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는 고려 정궁을 연경궁이라고 잘못 기록하고 있으며 이 잘못된 그후 대부분의 개성에 관한 읍지에서 답습되었다.

2 최근에 간행된 한국건축사의 개설서인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p 207), 尹張變, 『韓國의 建築』(p 278)에서 만월대는 고려 왕궁 또는 왕궁터로 소개되고 있다. 또 북한에서 나온 『조선건축사』나 『우리나라문화유적』에서도 만월대를 고려 궁궐터로 기술하고 있다.

3 『고려사』에서 <본궐>이라는 명칭이 쓰이기 시작하는 것은 대체로 고종 15년 이후에 나타나기 시작한다. 고려의 왕들은 의종때까지는 거의 정궁을 거처로 삼고 있었으며 이 때 정궁의 명칭은 단지 궁궐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무신란 이후에 와서 왕들이 자주 이궁이나 별궁을 거처로 삼기 시작했으며 결국 고종때 와서 다른 이궁들과 구분을 분명히 하기 위해 본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高麗圖經』에 기록으로 남겨놓기도 하였다. 이후 한차례 궁이 소실되었다가 재건되기도 하였지만 무신란이 일어나는 의종24년(1170년)까지 본궐은 여전히 정궁의 면모를 유지하였다. 특히 의종때에는 궁궐내에서 벌어지는 가례의 지침이 결정되었고 그 내용이 『고려사』에 수록되어 당시 궁궐내 각종 행사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11,12세기는 고려 정궁이 그 전성기를 맞이한 때인 동시에 궁궐에 관한 기록도 비교적 풍부하여, 궁궐의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는 시기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고려 정궁에 대해서는 그 사이 주로 궁궐 유지가 남아있는 소위 만월대와 그 후방 지역의 유적을 중심으로 적지 않은 고찰이 진행되었다. 1920년대부터 주로 지상에 노출된 건물 초석과 축대, 석조 계단 유적을 통해서 부분적인 건물 배치가 논의되었다.⁴⁾ 또 최근에는 건물터 일부와 연못터에 대한 발굴조사와 함께 본궐 외곽의 성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성과가 간략히 보고된 바있다.⁵⁾ 이들 연구에 의해 고려 정궁의 중요한 한 부분인 회경전터와 그 앞의 몇 개 출입문 그리고 회경전 뒷편의 두 세 건물터의 배치 모습이 파악되었다. 또한 회경전 서북편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진 건덕전 등 또 다른 중요한 건물들의 배치관계에 대한 간략한 추정도 이루어졌다.

한편 『고려사』에는 고려 정궁의 여러 건물에서 실제 벌어졌던 각종 행사 내용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특히 정궁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용된 현종에서 인종사이에 관련된 기록이 충실하게 나와 있다. 여기 대해서는 前間恭作的 「開京宮殿簿」에서 현종에서 인종

사이 『고려사』에 기록된 모든 건물을 망라하고 각 건물별로 실제 이용된 관련 기사를 분석하고 각 건물의 기능을 고찰한 연구가 이루어졌다.⁶⁾ 이 연구에 의해서 정궁의 정전으로 알려진 회경전은 대규모 불교행사나 외국사신의 영접과 같은 한정된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실제 왕이 하례를 받고 각종 궁중 행사를 치르는 상용 정전은 건덕전이었으며 그밖에 다른 많은 건물들의 구체적인 용도가 밝혀졌다.

이상의 기존 연구성과를 통해서 현종에서 인종대의 각 건물 용도는 어느 정도 파악되었다고 판단되며 만월대로 불리는 회경전 주변의 건물배치 모습도 부분적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아직도 고려 정궁에 대해서는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우선 정궁의 정전이 회경전과 건덕전 두 곳으로 운영되게 된 배경이 밝혀져야 할 것이며 회경전 주변외에 실제 궁궐의 일상적인 활동이 벌어졌던 건덕전과 그 주변의 배치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인 고찰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글은 위와 같은 과제를 염두에 두고 고려 정궁을 구성한 건물들을 정리하여 두 개 정전을 운영한 고려 정궁의 성격을 살피고 나아가서 회경전뿐 아니고 건덕전 일대에 대한 건물 배치까지를 추정해서 고려 정궁 전체의 건물배치가 갖는 특성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왔던 고려 정궁에 대해 그 전체 모습에 조금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찰의 시기는 궁궐이 가장 활발히 운영되었고 관련 사료가 비교적 충실한 11,12세기로 한정하였으며 관련 자료는 전적으로 『고려사』를 통해서 고찰을 진행하고자 하였다.⁷⁾

4 만월대 유지에 대한 건물배치를 언급한 문헌들로는 關野貞, 『韓國建築調查報告』(1904년)를 시작으로 몇몇 문헌이 유적을 소개하였으며 구체적인 언급으로 高裕燮,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資料 第6輯, 考古美術同人會刊, 1964)가 있다. 이들 문헌에서는 공통적으로 고려도경의 기록을 인용하여 유지의 중심 건물을 회경전으로 보고 그 앞에 창함문과 신봉문, 구정이 있으며 회경전 뒤로는 장화전, 원덕전이 있었던 것으로 언급하였다.

5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1, 1989

6 이 원고는 1941년 이전에 開京宮殿簿全이라 제목으로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그의 사후 前間恭作的 遺著稿本가운데 일본 宮內省書陵部 장서중 하나로 발견되어 1963년에 『朝鮮學報』 제26집에 「개경궁전부」란 제목으로 수록한 것이다.

7) 고려 정궁과 관련한 문헌자료로는 『고려사』나 『고려도경』 외에 『高麗史節要』나 『高麗古都微』 외에 약간의 읍지류가 전한다. 그러나 『고려사절요』는 궁궐과 관련해서는 거의 고려사 내용을 요약한 정도이며 『고려고도

2. 『고려사』에 기록된 11,12세기 고려 정궁의 중요 건물들

정궁이 전성기를 맞이했던 시기인 현종4년(1011년)에서 인종4년(1126년)사이의 1백여년간 궁궐 관련 기사는 『고려사』 世家나 志등에 비교적 충실하게 기술되어 있다. 여기에는 궁궐의 중요 전각들이 어떤 것들이었으며 각 건물은 실제로 어떻게 이용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이것은 고려 정궁을 구성하는 중요 건물의 용도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자료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인종16년에는 많은 건물의 명칭을 새로 고치는 작업이 있었다. 이 때의 건물 명칭 개정은 각 건물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간접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자료 구실을 한다.

이 시기 각 건물의 용도에 대해서는 이미 前問恭作의 「개경궁전부」에 각 건물별로 관련 기사를 치밀하게 정리한 연구가 발표되어 있다. 여기서는 前問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하면서 각 건물의 용도나 기능을 다시 정의하기로 한다. 각 건물의 이용 사례 출전에 대해서는 이미 「개경궁전부」에 상세히 수록되어 있고 분량이 많아 생략했으며 특별히 언급할 필요가 있는 부분에 한해서 각주를 달았다.

(1) 會慶殿

회경전은 대규모 불교행사와 송 황제의 조서를 받는 중요한 의식이 거행된 장소였다. 또 왕이 직접 드리는 기우제도 여기서 행해졌다. 따라서 회경전은 정궁의 가장 격식 높은 행사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회경전의 불교 행사로는 백명의 고승을 불러 법석을 여는 百高座道場 외에 藏經道場, 金剛明經道場, 消災道場 등 큰 불교행사를 여는 것이다. 이런 행사때는 회경전 앞에 있는 구정에서 1만 이상의 승려에게 음식을 내리는 사례가 많다.⁸⁾ 송나라의 사절을 영접하는 행사는 송나라

와 공식적인 외교교섭을 시작한 문종때부터였다. 『고려도경』의 저자가 고려를 방문했던 宣和년의 사신도 회경전에서 영접했다.⁹⁾

(2) 乾德殿

회경전이 국가적인 큰 행사에만 사용한 상징적 정전이었던데 비해 건덕전은 통상적인 의식을 거행하는 상용 정전이였다. 건덕전에서 이루어진 행사로는 왕과 신하간의 정례적인 朝會, 문무백관이 왕께 축하를 올리는 進賀賜宴, 정식의 視朝, 나이 많은 신하에게 탁상과 지팡이를 주는 宣麻 의식, 요나라 사절의 영접이 있다. 또 불교 경전을 강독하게 하거나 왕이 직접 드리는 제사도 여기서 하고 군사를 사열하거나 음악을 듣는 행사도 한다. 인종 개정때 大觀殿으로 고쳤다.

외국 사절가운데는 요나라 사신을 건덕전에서 접견하였다. 숙종때 東蕃이라고 칭하는 野人이 내조하였을 때 왕은 정전에서 예를 갖추어 이들을 대접하고자 했는데 신하들이 “예로부터 야인들이 왔을 때에 정전에서 접견한 적이 없었사오니 전례대로 편전에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고 해서 그말을 좇아 선정전에서 접대했다고 한다.¹⁰⁾ 당시 외국 사신중에는 송나라 사신만을 회경전에서 영접하고 요나라 사신은 건덕전에서, 야인은 편전에서 접견하는 것이

8 前問이 밝힌 바로는 회경전의 불교행사는 현종4년에서 인종4년사이에 45건에 달한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한 두가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가장 일찍 등장하는 회경전의 행사로 현종20년4월경 자일에 “장경도장을 회경전에 설치하고 구정에서 1만명의 중들에게 음식을 먹였다.”는 기사를 들 수 있다. 이후에 역대 왕들이 종종 백좌인왕도장을 회경전에서 열고 그 때마다 구정에서 1만, 전국에서 2만등 합해서 3만에 달하는 중들에게 음식을 베푸는 행사를 벌였다는 기사가 이어진다.

9 『고려사』 세가, 인종원년, 6월 경자일

10 『고려사』 세가, 숙종원년, 정월 신해일 기사에 동변의 야인 10명이 내조하자 왕이 정전에서 예를 갖추어 그들 대접하려 하였더니 최위등이 “예로부터 야인들이 왔을 때에 정전에서 접견한 적이 없었사오니 전례대로 편전에서 대접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는 기사가 있다. 숙종때 건덕전은 요나라 사신의 접견에 자주 이용되었으나 야인의 접견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사례로 미루어 여기서 말하는 정전은 송나라 사신에게 국한되어 있었던 회경전이라기보다는 건덕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은 이미 前問恭作이 언급한바와 같이 사료로써의 가치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이 글에서는 크게 다루지 않았다.

관례였다. 이것은 건덕전을 정전으로 지칭한 하나의 사례로 들 수 있다.

(3) 宣政殿

정식의 편전이다. 왕이 신하들과 정치를 의논하고 죄인에게 형벌을 내리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삼았다. 여진인등의 약식인견도 있었고 순종과 예종이 죽자 그 魂殿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으며 선종의 즉위가 거행된 적도 있다. 이러한 용도를 통해서 이 건물이 궁궐의 편전임을 알 수 있거니와 앞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숙종때 동번의 야인이 내조했을 때 정전이 아닌 편전에서 접견하도록 하여 선정전을 택한 사례에서도 당시에 공식적으로 편전으로 지칭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종종 왕이 건덕전에서 조회를 하고 선정전으로 물러나 신하들과 직접 정치를 의논한 기사를 볼 수 있다.¹¹⁾

(4) 文德殿, 延英殿, 長齡殿

세 건물은 왕의 학문소로 쓰였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그 가운데 문덕전에서는 경전의 강독, 초시 합격자가 다시 보는 시험인 復試가 이루어지고 또 정치를 듣거나 죄인을 처벌하는 일도 종종 있었다. 따라서 문덕전은 단순한 학문소보다는 편전의 기능을 겸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장령전은 강서를 하고 서적 편찬을 하는 외에 간략한 불교행사와 무인 사열, 蕃人의引見, 신하와의 曲宴등 역시 정치적인 기능을 갖고 있었다. 문덕전과 장령전에는 각각 御書房이 딸려있었다고 한다. 여기 비해 연영전은 왕이 기거하는 경우도 있었고 따로 延英殿學士라는 직책의 학자를 두기도 하여 더 학문소 기능에 비중을 두었다. 덕종, 선종은 실제 여기서 죽었는데 선종은 연영전 內寢에서 죽었다고 한다. 따라서 연영전은 학문소기능과 함께 왕의 침전 역할을 겸했음을 알 수 있다. 인종16년의 명칭 개정때 문덕전은 修文殿, 장령전은 奉文殿, 연영전은 集賢殿으로 바뀌었는데 개정된 명칭으로 각 건물의 기능이 더 확실히 드러났

11 “왕이 건덕전에 나가서 조회를 받고 선정전에 가서 시중 최계안과 평장사 최충등을 불러 당면 정책을 읊고 그른 것을 논의하였다.”는 기사를 볼 수 있다. (『고려사』, 세가, 문종즉위년8월, 경신일)

다고 생각된다.

(5) 重光殿

왕의 정침이다. 대대로 왕의 즉위식이 이곳에서 거행되었다. 덕종은 전왕이 죽자 중광전에서 즉위하고 翼室에 거처하면서 조석으로 애도했다고 한다.¹²⁾ 궁중 행사로는 유일하게 연등행사가 여기서 벌어지고 재추와 신하들의 연회, 병사의 열병, 將師의 陞見, 重臣의 擧哀 등이 벌어졌다. 그 밖에 예종은 중광전 西樓에서 투화한 송나라 사람을 접견하고 南樓에서는 군사들이 말위에서 격구를 벌이는 행사를 관람하기도 하였다고 한다.¹³⁾ 인종의 개정때 康安殿으로 고쳤다.

(6) 慈壽殿, 坤成殿

前間은 두 건물을 단지 내전이라고만 명시했지만 아래 내용으로 미루어 자수전은 왕대비전, 곤성전은 왕비전으로 판단된다. 자수전은 인종16년에는 永壽殿으로 개칭되었다. 건물명칭에 ‘慈’와 ‘壽’자를 넣은 것으로 보아 왕대비의 침소임을 알 수 있다. 선종이 즉위하면서 그 선왕비인 문종비 순덕태후를 위문한 바 있다.¹⁴⁾ 예종 원년에, 예부의 청으로 양계, 삼경, 3도호부, 8목에서 매년 정월 초하루와 동지 및 지원절에 곤성전에 표문을 올려 축하하는 것을 향례로 삼도록 하였다는 기사가 있다.¹⁵⁾ 행사격식으로 보아 곤성전은 왕비전으로 판단된다.

(7) 明慶殿, 應乾殿, 含元殿, 宴親殿

네 건물 모두 특정한 소규모 불교행사나 왕이 참석하는 작은 연회 장소로 사용된 건물로 추정되었다. 명경전의 본래 이름은 靈恩殿이었고 숙종의 세째 아들인 원명국사가 머리를 깎은 일이 다른 기록에 나와 있으며¹⁶⁾ 응건전은 왕이 보살계를 받은 사례가 있고 곡연을 연 적이 있다. 함원전과 연친전도 곡연이나 소규모 불

12 『고려사』 세가, 덕종, 즉위년 기사

13 『고려사』 세가, 예종 원년, 7월 계축일 및 『고려사』 세가, 예종 5년, 정월 경신일

14 『고려사』 세가, 선종 즉위년, 10월 무술일

15 『고려사』 세가, 예종 원년, 정월 무술일

16 興王寺圓明國師墓誌(인종19년) (許興植편저, 『韓國金石全文』, 아세아문화사)에 명경전에서 국사가 삭발했다는 기록이 있다.

교의식이 거행되었다.

(8) 正陽宮, 壽春宮, 乾明殿

세 건물은 모두 동궁과 관련한 건물이다. 정양궁은 정양전으로도 표기되며 현종12년에 왕세자 거처로 土陽宮을 정양궁으로 했다는 기사가 있다.¹⁷⁾ 수춘궁에서는 신하들이 왕태자에게 진찬하를 한 사실이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다.¹⁸⁾ 건명전은 前閤의 논문에서는 용도를 밝히지 않았지만 인종16년 명칭 개정때 동궁을 가리키는 '저(儲)'자를 건물명에 넣어 儲祥殿으로 된 것으로 보아 동궁전이 분명하다 하겠다.

(9) 宣德殿, 景靈殿, 含慶殿, 慈和殿, 星宿殿

빈전이거나 각종 신위를 모시고 제사드리는 건물들이다. 선덕전은 덕종, 정종, 문종, 선종, 숙종이 사망한 후 시신을 모신 빈전으로 사용한 것으로 기록되어있다. 경령전은 왕들의 신위를 모신 곳이다. 물론 정식 신위는 종묘에 모셨지만 따로 궁중에도 신위를 모시고 왕세자빈을 맞거나 기타 연등대회가 있을 때 경령전에 나와 일을 고하였다.¹⁹⁾ 함경전은 그 용도를 분명히 하기 어려운 건물이지만 문종때 제정한 궁전관리 직제 제정시 경령전과 동일하게 취급된 점에서 불전의 위패를 모신 건물로 추정된 바 있다.²⁰⁾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자화전은 인종16년 集禧殿으로 개정되었고 왕이 집회전에 참배하고 이어 경령전에 나아갔다는 기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왕실 영전을 모신 건물이 아닌가 추정되었다.²¹⁾ 성수는 모든 성좌의 별을 가리킨다. 예종때 왕이 직접 제사지냈다는 기사가 있다. 인종때 와서는 한때 五星殿으로 불렀다가 다시 인종16년에 靈憲殿으로 개정되었다.

(10) 淸燕閣, 寶文閣, 天章閣

청연각은 예종때 특별히 강서하는 곳으로 지었다. 수직하는 학사를 두고 조석으로 경서를 강론했다. 보문각 역시 학사가 수직하며 강학하는 장소였다. 청연각이 내전안에 있었기 때문에 학사들이 수직하는데 불편하여 따로 건물을 지었다고 하며 위치는 紗樓 곁이라고 하였다.²²⁾ 천장각 역시 예종때 건립되었는데 송나라 황제의 어필과 그림을 보관하는 곳이라고 한다.²³⁾

(11) 龜齡閣, 山呼亭

구령각과 산호정은 금원내에 있는 건물들이다. 구령각곁에는 東池가 딸려 있어서 주로 신하들과의 연회와 군사 查閱이 자주 벌어졌다. 산호정 역시 금원내의 중요한 정자인데 정종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기도 하였고 뒤에는 불사를 벌이기도 하였다.

(12) 宜春樓, 玉燭亭, 賞春亭, 紗樓, 嘉昌樓, 望雲樓

의춘루는 정종때, 옥척정과 상춘정은 문종때 건립되었다. 상춘정에서는 여러 차례 연회가 벌어진 기사가 나오고 또 소재도장등 소규모 불사나 三靑의 제사와 같은 도교와 관련한 제사외에 곡연, 연사 기사도 보인다.²⁴⁾ 사루는 주로 문신들을 불러 연회를 열던 곳인데 예종때 청연각이 지어지자 누 아래 남랑을 精義堂이라고 짓고 학사 강회 장소로 삼고 좌우는 휴식처로 삼았다고 한다.²⁵⁾ 가창루 역시 문신들과 연회를 벌이던 곳이다. 망운루에 대해서는 인종때 觀祥樓라고 개명했다는 기사가 전할 따름이다.

(13) 法雲寺

궁궐내에 세운 사찰이다. 숙종때 인왕도장을 여는 등 자주 소규모 불교행사를 벌이고 기우

17 『고려사』 志 食貨 俸祿조에 정양전으로 기록되어 있다.

18 『고려사』 세가, 문종10년, 12월병진일 및 동 선종16년, 정월신해일

19 “태자가 빈을 맞이하매 경령전에 고하였다.” (『고려사』 세가, 문종18년11월기묘일)외에 동왕 19년 5월, 계유일 연등행사 기사등

20 前閤恭作, 「개정궁전부」

21 『고려사』 志, 禮, 景靈殿親尊儀

22 『고려사』 지, 백관

23 『고려사』 세가, 예종12년, 6월계해일

24 『고려사』 세가, 문종24년, 4월신유외 여러 곳에 연회 기사가 반복된다.

같은 책, 예종4년, 3월무신일에 “상춘정에서 왕이 친히 삼청에 제사지냈다.”는 기사가 있다. 三靑은 도교에서 말하는 신선이 산다는 궁전인 玉淸 上淸 太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25 『고려사』 지, 백관

체를 지내기도 하였다.²⁶⁾

(14) 中書省, 門下省, 尙書都省, 樞密院等

『고려사』에는 수 많은 관청명이 등장하지만 그 가운데 어느 관청이 궁궐내에 있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고려도경』에 위치가 궁궐내라고 명시된 것들을 들면, 문하성, 중서성, 상서도성, 추밀원, 御史臺, 翰林院, 禮賓省, 八關寶, 軍器監, 尙乘局, 大盈署가 있다. 이 밖에 유사한 기능으로 미루어 역시 궁궐내에 있었다고 짐작되는 관서로 衛尉寺, 大府寺, 司宰寺, 大僕寺, 小府監, 尙藥局, 尙食局, 尙衣局, 尙舍局, 尙輦局, 掖庭局등이 『고려사』에 기재되어있는 관청들이다.

이상 열거한 건물들은 현종에서 인종사이에 『고려사』의 세가편이나 지편등에 건물명과 관련된 기사가 언급된 것들이다. 물론 당시 고려 정궁에는 위에 적은 건물외에도 다른 건물들이 더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 같은 시기 서궁이 적은 『고려도경』에는 위에 열거한 건물명외에 長和殿이나 元德殿, 長慶殿, 萬齡殿, 臨川閣같은 건물명이 나온다. 장화전은 그 행랑에 왕실의 보물을 보관하던 곳이며 원덕전은 적의 침입시 군사회의를 여는 장소였다. 만령전은 침실인데 비빈과 시녀들이 양편 행랑에 방을 잇대어 있다고 하며 장경전은 용도가 불분명하다.²⁷⁾ 임천각은 건물안에 서적 수천권을 보관하였다고 하였다. 『고려사』에는 이런 건물명이 들어있지 않다.²⁸⁾

『고려사』에는 주로 왕실의 움직임과 관련있는 건물에 한정해 건물명이 기록되었을 것이므로 누락된 건물이 다수 있었을 것이며 특히 왕

이 직접 출입하지 않은 건물은 당연히 수록되지 않았을 것이다. 위에 적은 건물들 역시 그런 사정으로 『고려사』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3. 각 건물의 기능상 분류와 건물구성의 특징

위에 열거한 건물들을 다시 정궁의 궁궐 기능에 따라 정전과 편전 그리고 왕의 침전과 학문소, 내전, 제사건물 및 금원내 건물로 구분하여 전체 공간구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우선 궁의 공식행사가 치러지는 정전으로는 제1정전이랄 수 있는 회경전과 상용 정전인 건덕전을 들 수 있다. 회경전이 전적으로 대규모 불교행사나 송나라 사신의 접견에 한정해서 이용된데 비해 건덕전이 일상 문무백관의 하례나 각종 궁중 의식을 거행하고 또 송나라가 아닌 여타 국가의 사신을 접견하는 곳으로 이용되었다.

왕이 신하들을 만난 정치를 의논하고 죄인을 다스리던 편전은 선정전이다. 그러나 이곳 외에도 문덕전, 연영전이 편전과 유사한 기능을 하였다. 다만 나머지 두 건물은 본래 학문소의 기능을 갖고 있던 곳이다. 『고려도경』의 장화전이나 원덕전도 기능으로 보아 편전에 속할 수 있을 것이다.

왕이나 왕비, 왕대비 및 많은 상궁들이 거처하는 내전에 속하는 건물은 일부 만이 알려져 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심되는 건물은 왕의 침전인 중광전이며, 그 밖에 왕비전인 곤성전, 왕대비전인 자수전이 있고 그 주변에 작은 전각들로 명경전, 응건전, 장령전, 함원전이 있다. 물론 이 외에도 후궁들을 위한 많은 건물들이 있을 것인데 『고려사』 기사로는 확인이 어렵다. 『고려도경』에는 회빈시녀를 위한 건물로 만령전이 들어있는데 역시 내전의 한 전각에 포함될 것이다.

왕세자 처소인 동궁에는 정양궁, 수춘궁, 건명전이 중심 전각으로 나온다. 이 가운데도 수춘

26 『고려사』 세가, 정조12년, 4월정묘, 숙종10년, 4월임오 및 예종원년, 6월무오일 기사등

27) 『고려도경』에는 장경전에 대해서 “장경, 중광, 선정 3전은 옛 기록에 비록 그 이름이 실려있으나 지금 들건데, 중광전 장경전을 중수하여 만 전으로 바꾸었다 하니” 운운하는 기사가 있다. 기록의 설명이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지 불분명하며 『고려사』의 당시 기록들과도 일치하지 않는 점이 많다. 앞으로 더 검토할 과제로 남긴다.

28 정찬영, 「만월대 유적에 대하여(1)」에서는 문덕전과 원덕전을 동일한 건물로 추정했으나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궁이 가장 중요한 건물로 활용되었다. 제사용 건물로는 선덕전, 경령전, 함경전, 자화전, 성수전을 들 수 있다. 이 밖에 후원에 세웠던 건물로 그 명칭을 열거하면 구령각, 산호정, 의춘루, 옥축정, 사루등이있었으며 이와는 별도로 주로 학사들을 수직케한 학문소로 쓰인 청연각, 보문각을 넣을 수 있을 것이다.

이들 여러 기능의 건물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점은 정전을 회경전과 건덕전 두 곳에 둔 점이다.

회경전은 대규모 불교행사와 왕이 직접 드리는 기우제 행사 또는 송나라 사신의 영접에 한정해서 쓰였다. 나머지 왕실의 공식적인 행사는 건덕전에서 치러졌다. 두 건물의 성격을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두 건물에서 치러졌던 중요한 행사 내용을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우선 회경전의 경우를 보면, 고려사에 나오는 최초의 건물 사용은 현종20년의 藏經道場을 연기사이다. 이 때 중 1만명에게 음식을 내렸다고 한다. 이어서 정종7년에 다시 장경도장을

표-1 11,12세기 고려 정궁의 중요 건물명과 용도

기능	건물명	인종16년 개정건물명	건물 용도 및 사용예	비 고
정 전	會慶殿	宣慶殿	제1정전. 백고좌도장, 기우제, 송의 영조수칙	
	乾德殿	大觀殿	제2정전. 조회, 백관의 진하, 선마의식, 정식시조	
편 전	宣政殿	宣仁殿	편전. 시사. 단행, 사연	
	文德殿	修文殿	학문소. 강서의 식	어서방 딸림
	長和殿		행랑에 왕실 보물보관	도경에만 나옴
	元德殿		유사시 군사회의, 죄인의 형벌	도경에만 나옴
내 전	重光殿	康安殿	왕의 침전. 즉위식거행, 제신소연	
	延英殿	集賢殿	학문소. 왕이 기거	학사를 두다
	明慶殿	金明殿	불법강수장소. 왕사임명	
	應乾殿	乾始殿	왕침전부속건물. 왕의 보살계	
	長齡殿	奉元殿	소규모불사, 강서, 서적편찬	
	含元殿	靜德殿	재추의 연회	
	慈壽殿	永壽殿	왕대비전	
	坤成殿		왕비전	
동궁전	正陽宮	肅和宮	왕자전	우춘궁(도경)
	壽春宮	麗正宮	왕자전	
	乾明殿	儲祥殿	왕자전	
제사용 건물	宣德殿	穆淸殿	덕중, 정중, 문중, 의중의 혼전	
	景靈殿		영개 영위를 봉안	
	星宿殿	靈憲殿	왕이 성수에 제사지냄	
	慈和殿	集禧殿	진전으로 추정	
강학과 연회	含慶殿	向福殿	불전으로 위패봉안	
	龜齡閣		신하들과 연회, 군사의 사열	
	淸燕閣		강학 장소	수직 학사를 둠
	寶文閣		강학 장소	수직 학사를 둠

열었으며 동왕 9년에는 백고좌도장을 열고 역시 중 1만을 먹었다. 이후로 인종대까지 누대에 걸쳐 백고좌도장이나 인왕도장등 각종 불교 행사를 열었는데 대개는 毬庭에서 1만명의 중에게 음식을 먹이는 행사를 결들였다. 그 행사는 고려사에 기록된 것만 44회에 달한다. 선종 6년(1089)에는 새로 주조한 13층 황금탑을 회경전에 세우고 慶讚會를 배설하였다는 기사도 보인다.²⁹⁾

불교 행사에 이어 자주 치른 행사로 왕이 직접 드리는 祈雨祭가 있다. 기우제의 첫번째 기사는 정종2년에 나타나며 이후로 인종대까지 13회가 기록되어 있다. 나머지 행사가 송나라 사신의 영접이었다. 그러나 회경전에서 송나라 사신을 영접한 것은 문종32년(1078)부터이다. 고려는 건국초기에는 송과 국교를 맺어왔으나 성종12년(993) 거란의 침입 이후 국교를 중단하였다. 그리고 다시 국교가 재개된 것이 문종 때였던 것이다. 이처럼 회경전은 주 용도가 대규모 불교행사였고 그 밖에 간혹 기우제를 지냈고 문종이후에 와서 송나라 사신을 영접하게 되었다.

한편 건덕전의 경우는 그 용도가 매우 다양하였다. 그 가운데도 가장 일상적으로 치러진 것은 문무백관의 朝賀儀式과 朝會를 받는 것이었다. 그 행사는 현종에서 인종대사이에 24회 언급되어 있다. 문종 즉위년8월 기사에 “왕이 건덕전에서 조회를 받고 선정전에 가서” 시중, 평장사를 불러 당면 정책의 옳고 그른 것을 논의하였다는 기사는 건덕전의 일상적인 용도를 잘 말해 준다. 그 밖에 건덕전에서 자주 거행된 행사로 왕이 신하를 위해 여는 연회가 있다. 연회는 특별한 절기를 맞아 거행하거나 신하의 급제를 축하해 벌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건덕전은 일상적인 궁궐내 행사때 왕이 신하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는 장소였다. 이런 내용을 아래의 팔관회의 행사절차를 적은 기사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팔관회 행사는 구경 앞 신봉루에서 거행되는

데 이 행사에 왕이 참석하기 위해 대내에서 신봉루에 이르는 왕의 이동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³⁰⁾ (이 행사기록의 건물명은 인조16년의 개정 이후 것으로 되어 있다.)

①왕의 좌석을 대관전(건덕전)위에 설치한다.

②대관전(건덕전) 마당 좌우에 일산 부채를 꾸민 의장 행렬을 정렬하여 의봉문(신봉문)까지 이른다.

③비신장군이 입시하면(대내에 들어가 왕을 뵈오면), 왕은 자황포를 입고 선인전(선정전)으로 나온다.

④좌우 승제의 인도에 따라 왕이 대관전(건덕전)으로 나와 자리에 오른다.

⑤왕이 전에서 내려 수레에 오른다. 수레가 의봉문에 이르면 수레에서 내려 잠시 누상에서 휴식한다.

⑥왕은 누상의 악차(임시휴게소)에 들어가 곤룡포를 갈아입는다.

⑦백관들이 층계를 올라 헌수한다.

⑧행사가 끝나면 왕이 수레에 올라 태정문(대초문)을 지나 대관전(건덕전)으로 들어간다.

위 팔관회 행사에서 왕의 이동 경로를 보면, 우선 대내 정침에서 편전인 선정전으로 나왔다가 정전인 건덕전에 가서 다시 전을 나와 수레에 옮겨타고 신봉문에 이르러 행사를 하고, 끝나면 대초문을 거쳐 건덕전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다.

일상의 조하의식과 팔관회때의 왕의 이동 경로로 보아 건덕전은 가까이에 왕의 침전과 편전을 두고 왕이 통상적으로 정전으로 사용한 건물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두 정전은 기능면에서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었다. 회경전이 대규모 불교행사나 기우제 또는 송나라 사신영접에 한정해있었고 건덕전은 통상적인 정전의 기능을 수행한 것이다. 자연히 두 건물의 주변에도 두 정전 기능

30 『고려사』 지, 예, 仲冬八關會儀에 상세한 절차가 기록되어 있다. 다만 『고려사』에 수록된 예 항목은 의종때 절차가 개정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건물명칭은 모두 인종때 개정된 것으로 명기되어 있다.

29 『고려사』 세가, 선종 6년, 무오일

과 관련한 건물들이 자리잡았음은 물론이다. 회경전의 뒤에는, 양쪽 행랑에 왕실 보물을 보관했다는 장화전이나 국가적 위급시 군사회의를 여는데 쓰도록 마련한 원덕전과 같은 특별한 용도의 건물이 있었다. 반면 건덕전의 주변에는 왕의 침전이나 편전등 궁전의 가장 일상적인 거주시설과 업무시설이 있었다.

고려 정궁에 이와 같이 두개 정전을 운영한 이유는 위의 두 건물의 기능에서 드러나듯이 통상적인 궁궐의 정전건물외에 대규모 불교행사를 치르기 위해 따로 회경전을 건립한데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회경전에서 치러진 불교행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였다. 백고좌도장은 백명의 고승을 불러 법회를 여는 행사였고 인왕경을 설법하는 인왕도장이나 장경도장을 열 때도 대개 1만명의 승려를 궁내 구정에서 음식을 내리는 행사를 병행했다. 따라서 이런 대규모 행사를 벌이기 위해서는 궁궐내에 특별한 대규모 건물이 필요했던 것이며 회경전은 바로 그런 용도에 맞추어 조성된 정전이었다고 볼 수 있다. 나중에 이 건물에서 송나라 사신을 영접하고 또 비가 안 올 때 왕이 기우제를 지낸 것은 장대하게 마련한 회경전의 격식에 알맞는 행사를 부수적으로 치른 결과였다고 할 수 있다.

회경전과 건덕전은 모두 정전으로써의 의식을 거행하는 건물이었다. 그 중에도 회경전에서 치르는 의식이 더 격식이 높고 장대한 것이었다. 건덕전에서 치르는 연례적인 조하의식이나 군신간의 賜宴에 비하면 백고좌도장을 여는 행사나 송나라 사신의 영접은 훨씬 격이 높은 것이었다. 실제로 송나라 사신은 회경전에서 영접하고 요나라 사신은 건덕전에서 영접한데서 두 건물의 격식 차를 분명히 찾아 볼 수 있다.

궁궐내에 서로 격식이 다른 의식을 위해서 의례용 건물을 이처럼 두 곳으로 구분하는 사례는 이미 당나라의 장안이나 8세기 일본의 궁궐에서도 발견된다. 당나라 장안성의 경우 궁궐은 도성 정북방의 太極宮외에 동북 모서리에 추가로 조성한 大明宮이 있다. 이 두 궁의 용

도에 대해서는 태극궁이 주로 황제의 즉위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대례를 거행하는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대명궁이 그 밖의 통상적인 의식에 사용했다는 견해가 있다. 이것을 본 받아서 일본의 平城宮에서는 두 곳의 朝堂院이 병립해 있어서 한쪽이 즉위식이나 정월의 조하의식같은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데 쓰이고 나머지 한쪽은 통상적인 의식에 쓰였다고 한다.³¹⁾ 고려 본궐의 두 정전 운영이 중국의 당나라 궁궐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궁궐내의 두 개 의식용 건물의 사례가 고려 본궐에서만 특별한 것이 아니었음은 확인할 수 있다.

고려 정궁에 두 개의 정전이 운영된 것은 창건 당초부터였다고 보기 어렵다. 건덕전과 같은 통상적인 정전은 당연히 본궐의 창건부터 존재했을 것이지만 회경전과 같은 대규모 불교행사를 치르는 건물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나타나게 되었다고 추측된다. 그 시점이 언제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려사』의 기사로 미루어서는 대규모 불교행사가 기록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현종5년 재건 이후가 아닌가 짐작된다.

태조2년(919)에 창건된 고려 정궁은 광종 12(961)에 수영궁궐도감을 두어 한차례 수리를 했다. 이 건물은 현종2년(1011) 거란이 도성을 침입하여 대묘와 민가들을 모조리 태울때 소실되었다. 궁궐은 그해 10월부터 수리를 시작해서 3년이 지난 현종5년(1014)에 와서 재건되었다. 공사 기간이 길었던 것으로 미루어 소실전에 비해 대대적인 재건공사를 벌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종2년 거란의 침입으로 소실되기 전의 궁궐을 편의상 1차 궁궐이라고 하고 현종5년의 재건 이후를 2차 궁궐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고려사』에는 1차 궁궐에 있었던 중요한 건물로 天德殿, 元和殿, 長生殿외에 重光殿과 稷

31 金子裕之, 「儀式と執務の場=朝堂院」(田中琢編, 『古都發掘-藤原京と平城京』, 岩波新書468, 소수), 岩波書店(東京), 1996, p140

庭, 威鳳樓 등의 건물명이 산견된다. 천덕전은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쓰인 건물이었다. 여기서 왕은 자주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고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치렀다. 성종2년(983) 정월에 신하들과 천덕전에서 연회를 베풀고 차등있게 물품을 주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중광전은 왕의 침전이었던 것으로 짐작되는데 혜종2년(942)에 왕이 이 건물에서 죽었다고 한다. 중광전은 2차 궁궐에도 같은 명칭의 건물에서 왕이 죽은 사례가 반복해서 나온다. 그것으로 미루어 재건이후에도 건물명을 고치지 않고 왕의 침전으로 그대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광종8년(957) 기사에는 구정에서 궁술을 관람했다는 기사가 있다. 이미 구정은 광종때부터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중요한 출입문으로는 大定門과 長春門의 존재가 기록되어 있다.³²⁾ 또 광종9년(958)에 위봉루에 왕이 나와 급제를 주었다고 하고 성종즉위년(981)에는 위봉루에서 대사령을 내렸다고 한다. 이후로 위봉루에서 대사령을 내린 기사는 몇번 더 나온다. 2차 궁궐에서 대사령을 내린 장소는 구정 앞에 있었다는 신봉루였다. 위봉루가 그대로 명칭을 바꾸어 신봉루가 된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같은 기사를 종합해 볼 때 소설전 본질의 중요한 건물은 정전으로 추정되는 천덕전외에 왕의 침전인 중광전과 구정 및 위봉루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여기 비해서 1차 궁궐 시절에 궁궐에서 치러진 대규모 불교행사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당연히 백고좌도장이나 인왕도장을 열었다는 기사도 없고 1만의 중들에게 음식을 먹었다는 사례도 찾기 어렵다. 유일한 것이라면 궁궐에 작은 화재가 발생한 직후인 목종12년(1009)에 구명도장을 장춘전, 건화전 두 곳에 설치했다는 기사를 찾을 수 있는 정도이다. 장춘전이나 건

32 목종12년(1009)에는 궁궐에 화재가 있었는데 중랑장들이 근전문을 수직하고 호부시랑이 대정문 별감이 되어 모든 궁문을 닫아 사람들의 출입을 금하고 오직 長春 大定 두 문만 열었다는 기사가 보인다. (『고려사』 세가 목종12년, 정월임오일)

화전이 어떤 성격의 건물이었는지 지금으로써는 파악하기 어렵다. 그러나 여기서 치러진 행사가 소규모 화재를 겪고 나서 치른 것이었던 점으로 미루어 백고좌도장과 같은 장대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백고좌도장, 인왕도장등 대규모 행사는 회경전 기사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현종20년 이후에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현종 자신은 불우한 성장과정을 거쳐 나중에 성공적으로 22년간 왕위를 누린 인물이었다. 즉위 초년에 黃龍寺를 중수하고 도성에 重光寺에 奉先, 弘慶寺를 창건하고 그 모친을 위해 玄化寺를 창건하였다. 고려 초기의 역대 왕들이 모두 불교에 심취했으나 현종은 특별히 불사 조성에 힘을 기우렸다. 이런 현종의 개인적인 취향도 새로 재건되는 궁궐에 대규모 불교행사를 치를 수 있는 회경전과 같은 건물을 조성하게 한 바탕으로 작용했다고 짐작된다.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볼 때 건덕전과 같은 통상적인 정전건물이 본질의 창건시기부터 존재했던데 비해서 회경전과 같은 대규모 불교행사를 위한 정전은 후대의 궁궐 증축이나 재건과정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려사』의 기록에 한정해서 본다면 그 시기는 현종 재건 이후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11,12세기 고려 정궁의 건물 배치

고려 정궁의 건물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로 회경전 주변에 대한 위치 확인이 이루어졌다. 건물 유지를 토대로 승평문에서 회경전 그리고 그 후방의 두 세 건물지의 추정이 이루어지고 부분적인 배치도면이 작성되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문헌자료에 의거해서 건덕전이나 선정전등의 위치관계가 언급되는 정도에 머물고 있다. 여기서는 기존의 연구성과에 덧붙여서 앞에서 살펴본 『고려사』의 기사들을 보충해서 궁궐 전체의 건물 배치관계를 추정해 보기로 한다.

4-1 주요 건물군의 배치

(1) 회경전과 그 주변 건물

이 부분의 건물 배치를 전하는 기사는 아래와 같다.

(승평)문 안에서부터 좌우로 나뉘어 두 개의 정자를 만들고 모두 모두 '동락정'이라고 했다. 작은 담장이 뿔뿔이 서로 연속되어 신봉문까지 이르렀다.

(신봉문의) 동쪽문에는 '春籥'이라고 번역했는데 세자궁으로 통하고, 서쪽문은 '太初'라고 했는데, 왕이 거처하는 備坐로 통한다.

동덕문은 좌우로 두 문이 서로 마주하고 있으며, 그 가운데 것이 곧 승평문이다.

회경전은 창합문안에 있는데, 따로 전문이 있고, 규모가 매우 웅장하다.

장화전은 회경전 뒤 북으로 뻗은 하나의 멧부리에 있는데, 지형이 높고 험준하며, 모양과 제도가 좁아 건덕전만 못하다.

원덕전은 장화전의 뒤에 있다. 지형이 더욱 높고 만들새가 초라하다.

임천각은 회경전 서쪽, 회동문 안에 있다. (이상 「국역고려도경」)

위 「고려도경」의 기사와 만월대 유지를 바탕으로 한 고유섭의 고찰³³⁾에 의하면, 만월대 유지는 제일 아래쪽부터 승평문터가 있고 그 좌우에 동덕문이 있으며 광명천이라는 개울이 좌에서 우로 흐르고 금교를 지나서 신봉문이 나오고 그 뒤로 구정을 지나면 창합문에 이르고 창합문뒤로 높은 석축 계단을 오르면 회경전 앞 전문을 지나 회경전뜰에 이르는 것으로 상정하고 있다. 회경전 좌측에는 삼각형 형태의 대지가 형성되어 그 안에 임천각이 있다고 하였다. 회경전의 뒤로는 행각을 지난곳에 장화전이 있고 그 뒤로 원덕전과 장경전이 이어지는 것으로 묘사되었으며 장화전 뒤로는 다시 지세가 급한 경사를 이루는 모습으로 파악되었다.

1964-65년에는 일부 유지에 대한 발굴조사가 있었다. 발굴결과에 대해 약식 보고³⁴⁾만이 입수되었기 때문에 발굴 성과에 대한 확실한 내

용을 알 수 없지만 대체로 현재의 유지가 회경전 부근터라는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도 일단 회경전과 그 앞의 창합문, 신봉문 그리고 회경전 뒤의 건물터를 각각 원덕전, 장령전으로 보기로 한다. (그림-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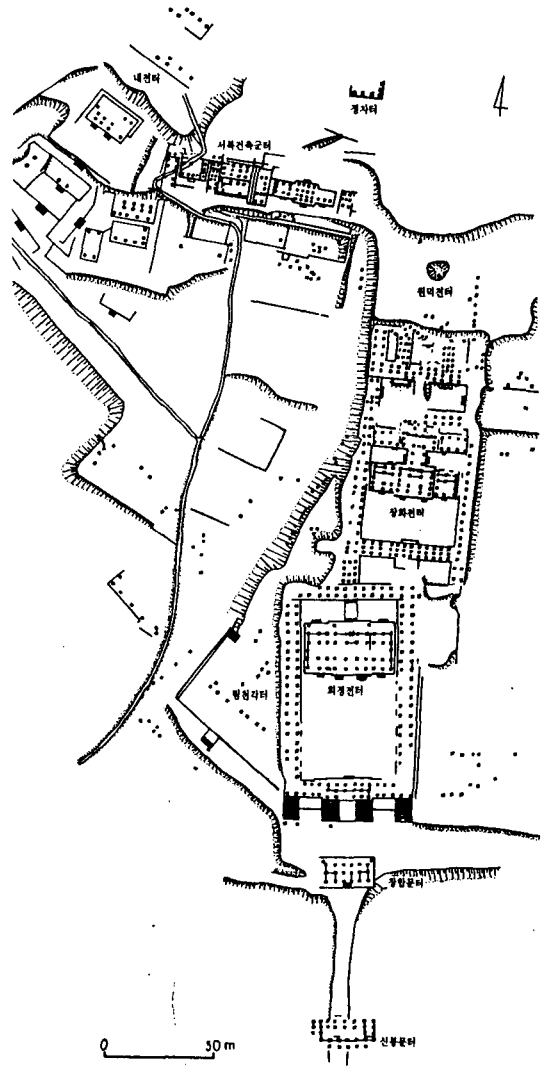


그림-1. 만월대 배치도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옮김)

33 고유섭, 앞 책

34 정찬영, 앞 글

(2) 건덕전과 그 주변 건물

관련 기사로 아래와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건덕전은 회경전의 서북쪽에 있는데 따로 전문이 있다.

만령전은 건덕전의 뒤에 있다.

장령전은 건덕전의 동쪽 紫門 안에 있다.

연영전각은 장령전의 북쪽에 있다. -- 그 북쪽의 것을 또 자화전이라고 했는데, 역시 연회하는 곳이다. 앞에 3 각을 세웠는데 '보문각'이라고 하는 곳에는 열성이 내린 조서를 간직했고, 서쪽 것은 '청연각'이라고 하는데 여러가지 사기와 자 집을 간수했다. (이상 『국역고려도경』)

(청연각의 주변에 대해서) "대내의 측면 즉 연영서전의 북녘이고 자화전의 남쪽인 곳에 새로 보문, 청연의 두 전각을 창건하시었다. --- 주위의 경치를 둘러보니 난간 밖에는 돌을 쌓아 가산을 만들었으며 정원으로 끌어들이는 물은 높을 이루었다."(『고려사』 열전³⁵⁾)

『고려도경』에는 건덕전의 위치를 회경전의 서북쪽이라고 명시하였다. 건덕전 동자문 안에는 장령전이 있고 장령전 북쪽으로 연영전이 있고 연영전 북에 자화전, 그 앞에 청연각과 보문각이 있고 또 건덕전 뒤쪽에 내전의 비빈들이 거처하는 만령전이 있다고 적었다. 위 자료만으로 편전이나 중광전의 위치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유섭은 그림 -2와 같은 건물 배치안을 추정한 바 있다. 여기서서는 기존 연구성과를 참고하면서 『고려사』의 관련 기사를 보충해서 좀더 구체적인 건물배치를 살펴보기로 한다.

건덕전 동자문 안에 장령전이 있다는 기사로 미루어 장령전은 건덕전 회랑밖의 동쪽에 따로 작은 구획을 하여 자리잡았다고 짐작된다.³⁶⁾

35 『고려사』 열전, 金仁存편에 왕이 청연각에서 친왕들과 양부대신들을 위한 연회를 배설하면서 김인존에게 연회에 대한 실황을 기술하도록 하여 글이 나왔다고 한다.

36 고유섭, 『한국건축미술사초고』에는 장령전을 건덕전 회랑내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 그림이 실려있다. 그러나 건덕전이 상용정전이고 이곳에서 문무백관의 하례가 치러지는 점을 감안한다면 장령전을 회랑내에 있다고 보기는 적절하지 않다. 또 동자문이라는 문안이라고 명시한 것으로 미루어 건덕전 회랑밖 동편에 따로 작은 회랑을 갖춘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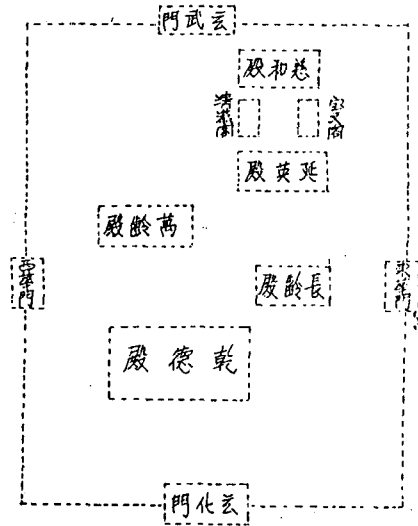


그림-2. 고유섭의 건덕전 주변 건물배치 추정안(『한국건축미술사초고』, p.76)

장령전의 뒤에 연영전이 있고 그 북쪽에 청연, 보문 두 각이 있다고 한다. 또 청연각이 '禁內'에 있기 때문에 학사들의 출입에 불편이 있어서 따로 보문각을 세웠다는 기사³⁷⁾로 미루어 청연각과 보문각은 각각 금내 즉 후원의 안과 밖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연, 보문각 북쪽에는 진전인 자화전이 있다고 하였다.

연영서전은 大內의 측면이라고 하였다. 다시 말하면 연영전의 측면에 대내 즉 내전이 있다는 설명이다. 내전의 중심은 왕의 침전인 중광전이다. 중광전 주변에 여러 부속 건물이 있다. 이 밖에 왕비전인 곤성전, 왕대비전인 자수전이 각각 독립된 전각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생각된다. 중광전에서는 신하들을 불러 연회를 열기도 하고 간단한 군사의 사열을 벌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외부의 출입을 고려한다면 중광전은 내전의 제일 남쪽에 자리잡았다고 볼

안에 장령전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듯 하다.
37 『고려사』 지, 백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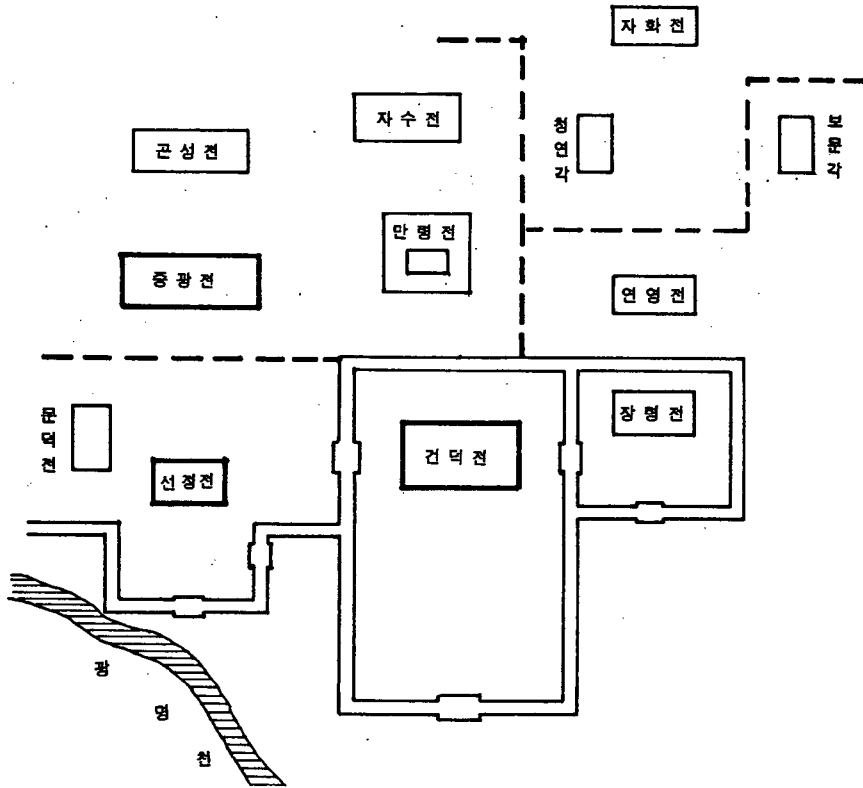


그림-3. 건덕전 주변 건물 배치 개념도

수 있다. 또 그 주변에는 각종 소 연회와 불교행사를 여는 부속건물들인 명경전, 응건전, 한원전이 있었다고 짐작된다. 왕의 침전 뒤편, 내전의 중심부에 왕비전인 곤성전이 자리잡았고 그 동편에 왕대비 처소인 자수전이 있다고 추정된다.³⁸⁾

공식적인 편진인 선정전은 신하들의 일상적인 출입이 이루어지는 곳이므로 내전과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곳에 위치할 수 밖에 없다. 동시에 왕의 출입에 편리한 위치여야 한다. 팔관회가 열리면 왕은 침전에서 나와 우선 선정전에 잠시 머물러 있다가 건덕전에 들러 가마를 타고 대초문을 지나 신봉문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선정전의 위치는 중광전 남쪽, 건덕전의 서쪽 가까운 곳이라고 판단된다.

선정전 남문에서 왕이 변방 관리를 인견한 기사가 있고 남랑에서는 무거운 형벌을 내린 기사가 있다. 또 궁중의 경비를 맡은 군사들인 위숙군의 배치를 적은 기록에 의하면 선정전(선인전)동자문에는 궁궐내 다른 어느 곳보다 지위가 높은 고위 무관이 이곳의 경비를 맡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즉 선인전동자문에 대장군1명, 장군 1명외에 5명의 장교를 두었다. 여기 비해 궁의 바깥 정문인 광화문이 단지 직사장교외에 16명의 장교, 중광전(강안전) 남문과 동말문에 장교 각 1명, 회경전(선경전) 북문에 장교 1명을 둘 뿐이다. 선정전동문외에 장군이 배치된 곳은 대초문앞 1명, 춘덕문 앞 1명 뿐

38 조선시대 궁궐관계 문헌들에 의하면 왕대비 처소는 정침의 동편에 두는 것을 상례로 삼았다고 한다.(萬壽殿修理都監儀軌 참조)

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선정전 동쪽문은 궁궐 경비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였음을 알 수 있다. 선정전과 비슷하게 좌인에게 벌을 내리고 신하들을 접견하는 또 다른 건물로 문덕전이 있다. 이곳은 본래 왕의 학문소 건물인데 정치를 보는데도 자주 이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 건물의 위치는 왕의 침전과 선정전에서 가까운 곳이 아닌가 짐작된다.

이들 자료를 토대로 건덕전과 그 주변 건물의 배치 개념을 추정한 것이 그림-3 이다.

(3) 동궁전, 관청 및 구정 주변

왕세자 처소인 동궁은 신봉문 동쪽 문인 춘덕문을 들어선 곳에 있다. 중심 건물인 수춘궁 외에 정양궁, 건명전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배치관계는 전혀 알 수 없다.

국상시 빈전을 모시는 건물인 선덕전이나 역대 영위를 봉안한 경영전, 불전위패를 봉안한 함경전과 성수전등의 위치 역시 현재로는 확인할 길이 없다. 다만 고려본궤의 전체공간 구성으로 미루어 제사 시설들이 놓일 수 있는 가장 가능성 높은 지역은 내전의 서쪽 지역이 아닌가 짐작된다. 궁의 동편은 동궁이 자리잡고 있으며 내전의 후편은 금원이 넓게 자리잡고 있었다고 추측된다. 결국 궁 서쪽, 내전과 궁 바깥 사이의 공간이 비교적 신위를 봉안한 건물이 들어서기 적절한 지대로 판단된다. 또 통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동쪽이 우선되는데 비해 신위를 봉안하는 곳은 서쪽을 우선하는 관례로 보아서도 그러한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된다.³⁹⁾ 물론 하나의 가정이므로 더 구체적인 사실 뒷받침이 필요하다.

선정전의 바깥쪽으로는 신하들이 궁중에서 일상적인 집무를 보는 각종 관청들이 자리잡았다고 짐작된다. 승평문 남쪽에서 불이 나 수백칸

이 타고 어사대로 연소되었다는 기사⁴⁰⁾로 미루어 이 관청들은 승평문에서 서쪽으로 길게 이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구정의 위치는 승평문과 신봉문 사이의 넓은 공간에 위치해 있다. 고유섭의 고찰에 의하면 신봉문과 승평문 사이에 廣明川이 흐르는 것으로 되어 있다.⁴¹⁾ 아마도 구정은 이 광명천의 남쪽 넓은 평탄한 곳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신봉문은 신봉루라고도 불리는 곳으로 왕의 대사령을 내리는 정치적으로 중요한 곳이었다. 연등회때는 왕이 신봉루위에 올라가 신하들의 헌수를 받기도 하였다. 『고려도경』에는 이 신봉문의 좌우에 각각 태초, 춘덕 두 문이 있어서 태초문을 통해서 왕의 거처가 갖추어진 곳으로 통하고 춘덕문으로는 동궁으로 통한다고 적었다. 앞에서 인용한 팔관회의 행사과정에 의하면 팔관회가 끝나면 왕은 신봉루에서 태초문을 통해서 건덕전으로 돌아간다고 적었다. 『고려도경』과 일치되는 기사이다.

4-2. 황성과 궁성 및 각 출입문들

『고려도경』에서는 광화문을 왕부의 편문, 승평문을 궁성의 정문으로 서술했다. 『고려사』에서는 “황성 주작문의 남쪽에 지진이 있었다.”는 기사도 보인다. 이 두 기사에 나오는 황성, 궁성의 기사로 미루어 정궁은 궁성으로 지칭하는 내부 울타리와 그 바깥에 황성으로 지칭되는 바깥 울타리를 두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바깥 울타리 즉 황성의 출입문으로는 廣化門, 朱雀門, 迎秋門, 長平門이 있었다고 생각된다. 설날 그믐날 악귀를 쫓아내는 의식인 대나의식 절차에 의하면⁴²⁾, 유사가 신봉문, 광화문, 주작문, 영추문, 장평문에 술과 과일을 진설한다고 한다. 신봉문은 정전으로 통하는 가장 중요한 문이며 광화문은 궁 동남 모서리의 정문, 주작

39 조선시대 종묘의 경우에 소위 西上의 원칙이라고 해서 서쪽을 높은 곳으로 삼고있다. 이런 생각은 이미 한나라때 종묘제도에서 나타난 것이다. 조선시대 궁궐가운데는 경희궁의 태령전이 역시 정전 서쪽에 놓였고 창덕궁에서도 대체로 궁의 서쪽에 선원전을 두었다. 또 중건 경복궁에서도 서북 모서리 일대를 각종 신위를 모신 공간으로 구획한 사례를 볼 수 있다.

40 『고려사』 세가, 정종2년, 8월기유일

41 高裕燮, 「松都古蹟巡禮」(『松都의 古蹟』 소수) 및 『한국건축미술사초고』의 삼도 참조

42 『고려사』 지, 예, 大飜儀

문은 남문, 영추문은 서문, 장평문은 북문이다. 신봉문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네문이 각기 궁의 동서남북 바깥 문이 되는 셈이다.

이 가운데 궁궐 출입하는 정문은 광화문이다. 명칭이나 방위로 보아서는 남문인 주작문이 정문이 되어야 겠지만 아마도 본궐의 지형조건상 남문은 하나의 상징적인 역할에 그쳤고 실제로 궁궐을 출입하는 문은 동남방에 있는 광화문이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경비 군사를 배치하는 데서도 광화문에 직사장교를 비롯해 무려 16명의 장교가 배치된데 비해 주작문, 영추문이 산직장상 등 4명, 장평문이 직사장교등 5명이다. 광화문 앞으로는 6조 관청이 좌우에 늘어서 있었다고 하며 또 시내 중심부로 향하는 도로도 광화문에서 시작되어 있었기 때문에 광화문은 본궐 외곽의 실질적인 정문이었던 것이다. 속궁은 평양에 행차하던 중 갑자기 병을 얻어 한밤중에 궁으로 돌아오던 도중 장평문 밖에 이르러 가마안에서 죽었다. 날이 밝은 뒤에 시신이 서화문에 이르러서야 태자 군신이 곡을 했다는 기사가 있다.⁴³⁾ 장평문이 북쪽 외곽문임을 알려주는 대목이다.

한편 궁성에는 다시 여러 곳에 출입문을 두었는데 남쪽에 승평문이 가장 중심이 되었다. 『고려도경』에서는 승평문을 궁성의 정문이라고 적었다. 또 승평문 앞에는 남로라는 길이 있었다.⁴⁴⁾ 승평문의 위치는 광화문을 들어서서 조금 진입해서 북쪽으로 꺾인 곳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승평문 남로란 광화문에서 승평문 앞으로 이어지는 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또 승평문에서는 낭옥이 수백칸 이어져서 어사대등 관청에 연결되어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승평문은 실제 궁궐 내부로 들어가는 출입문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고려사』에는 동화문, 서화문등 수 많은 출입문의 명칭이 등장한다. 이 문들의 위치에 대해 서화문을 궁성의 서문, 동화문을 궁성의 동문으로 추정한 그림을 제시하였는데 근거를 밝히지는

않았다.⁴⁵⁾

1973년에 만월대 유적을 조사한 보고⁴⁶⁾에는 당시의 궁성과 황성의 흔적을 아래와 같이 기술하고 있다. 황성 동벽은 광화문자리 동쪽에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뻗은 능선을 따라 곧게 뻗었고, 북쪽과 중앙부에 문지가 있고 남쪽에는 광화교자리 앞에 광화문지가 있다. 황성의 남벽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뻗어 나가다가 직각으로 꺾여져서 남쪽 낮은 야산위로 지난다. 황성 정문인 주작문은 이 남벽 중앙부에 있는 주작현에 있었다. 황성 서벽은 송악산 줄기의 한 능선을 따라 내려와서 놀리문에서 서남으로 뻗어 오정문에 이르며, 북벽은 야산을 중심으로 그 좌우의 작은 골짜기를 막아 토성을 축조했다.

궁성의 북벽은 황성 북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있고, 서벽은 북벽으로부터 야산을 따라 서남쪽으로 뻗었으며 광명천을 가로질러 서화문지를 지난다. 동벽은 여정궁지에 일부 남아있으며 동쪽으로 출입하는 문의 기둥돌과 계단이 남아있으며 여기서 남쪽으로 흙담벽 모양으로 만들어졌고 궁성 남벽은 지금 그 터만 남아있다.

이 현지 보고에 의하면 정궁의 황성은, 남쪽 성벽이 주작현을 중심으로 동편은 광화문까지 서쪽은 오정문까지 연결되고, 동쪽 성벽은 광화문에서 북쪽으로 능선을 따라 이어지고 서쪽 성벽은 나성과 중복되면서 서쪽 능선을 따라 북쪽으로 이어져 각각 북쪽 성벽에 연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궁성은 황성안에 별도로 성벽을 갖추었음을 알 수 있다.

4-3. 고려 정궁의 기본적인 전체 배치

앞에서 검토한 궁궐내 주요 부분의 위치 관계를 종합하면 고려 정궁의 전체 건물 배치는 아래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 궁궐은 크게 외곽의 황성과 내성인 궁성으로 이중의 성벽을 갖추고 있다. 황성에는 남쪽에 주작문, 동편에 광화문, 서편에 영추문, 북쪽에 장평문이 있다.

43 『고려사』 세가, 승종10년, 10월을축일

44 『고려사』 지, 오행

45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一志社, 1996) p. 33

46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궁성은 남쪽에 정문인 승평문, 서쪽에 서화문이 있고 각기 동편과 북쪽에도 출입문을 두고 있다. 황성의 주 출입문은 동남 모서리 광화문이다. 이 문을 들어서서 서쪽을 향해 진입하다가 북쪽으로 꺾여서 궁성의 정문인 승평문에 이른다. 승평문을 지나서 일직선 상에 신봉문, 창합문이 이어지고 그 뒤에 대규모 불교행사나

송나라 사신을 접견하는 제1정전인 회경전 일곽이 자리잡아 하나의 중심부를 형성한다. 그 뒤로는 장화전, 원덕전등 왕실을 상징하거나 군사적 결정에 쓰이는 특별한 기능의 건물이 이어진다. 실질적인 궁의 정전이랄 수 있는 제2정전 즉 건덕전은 회경전 북서쪽 궁의 한가운데 중심에 위치한다. 그 뒤편 오른쪽 일대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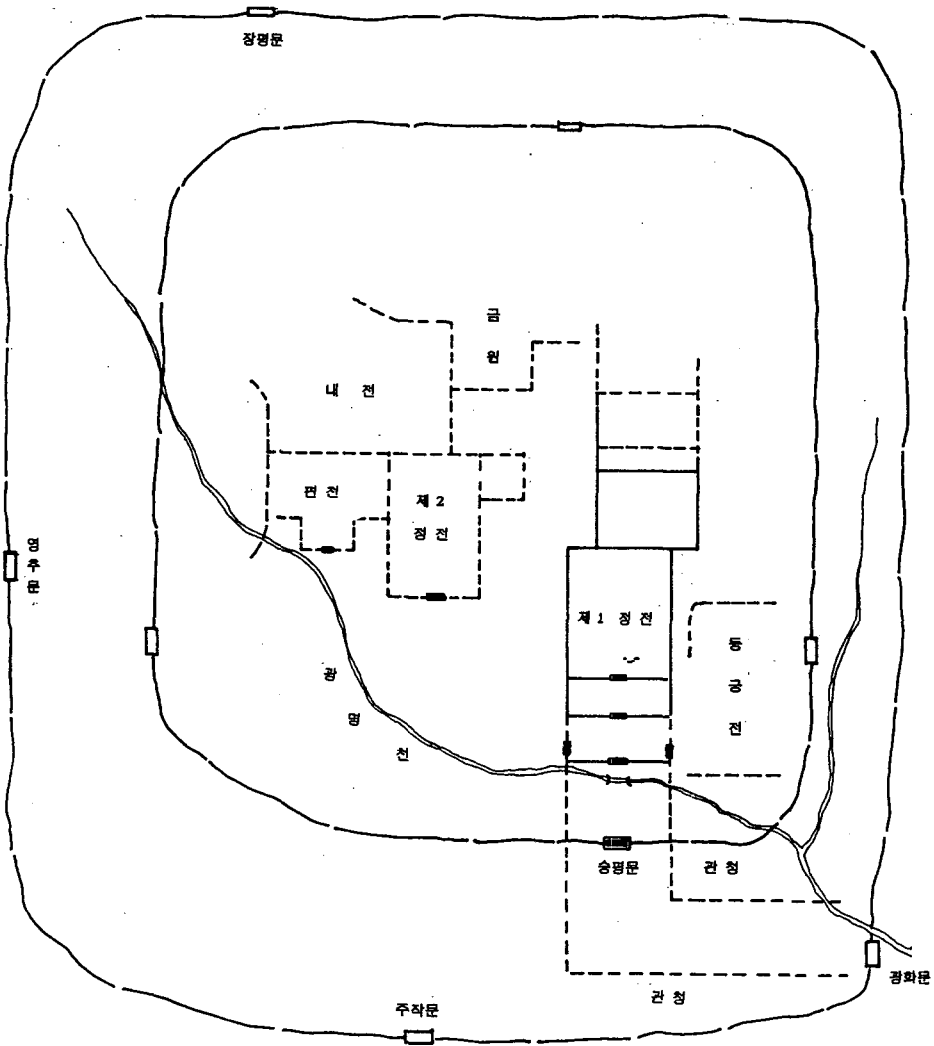


그림-4. 11,12세기 고려 정궁 건물 기본 배치개념도

왕의 학문소 겸 휴식처가 마련된다. 건덕전 뒤 왼편부터는 내전이다. 내전의 중심에 왕비처소인 곤성전과 왕대비 처소인 자수전이 있다. 내전의 남쪽으로 왕의 침전인 중광전이 자리잡고 있고 주변에 부속 건물들이 있다. 침전 남쪽에 왕의 학문소 겸 정치를 보는 문덕전이 있고 그 아래로 편전인 선정전이 자리잡는다. 내전 뒤편 일대는 금원이다. 왕의 침전 서쪽으로는 왕실내에서 드리는 각종 제사를 위한 건물들이 있다. 동궁 즉 왕세자 거처는 회경전의 동편에 위치한다. 궁궐내 여러 관청들은 승평문 서쪽으로 길게 이어져 선정전 앞으로 연결된다. 대체로 이러한 모습으로 전체 궁궐의 기본적인 윤곽이 자리잡혀 있었다고 추정된다.(그림-4)

한편 궁궐 주요부의 위치를 추정하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으로 현재의 궁터 서북에서 동남으로 흐르는 광명천이라는 물줄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물줄기는 궁궐의 지형이 덜 파괴되었다고 생각되는 1915년 작성 1만분지1 지형도(47)에도 간략하게나마 확인이된다.(그림-5) 현지를 살펴본 고유섭은 광명천이 신봉문과 승평문 사이를 가로질러 흐른다고 하였다.

이 물줄기와 관련하여 『고려사』 志의 圍宿軍의 배치에 대한 기사가 참고가 된다. 여기에는 궁궐내 중요 출입문에 호위하는 군사들을 배치하는 내용을 적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물이 지나가는 곳에 水口를 경비하는 군사를 명시한 곳이 세 곳이 나온다. 첫째는 광화문으로 수구장교 1명을 두었으며 태정문(태초문)앞에 수구장교 1명을 두었고 마지막 한곳으로 선인문(선정문)에 수구감문위군 2명을 두었다. 이것은 광화문과 태초문 그리고 선정전의 남문인 선정문이 각각 물줄기를 곁에 두고 있음을 뜻한다. 즉 선정전이나 건덕전등 궁의 중요부분은 이 물줄기 즉 광명천의 북쪽에 자리잡고 있고 태초문에서 선정전의 남문이 광명천에 면하여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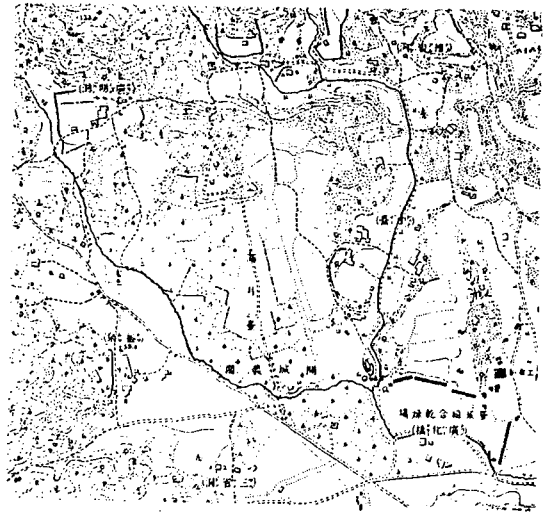


그림-5. 1916년 작성 만월대 주변 지형도
(『一萬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

고려 정궁의 조성 경위를 볼 때 태조2년의 창건에서 현종2년 소실사이의 소위 1차궁궐의 중심은 천덕전이었다. 또 1차궁궐에는 왕의 침전으로 추정되는 중광전이 있고 구정과 위봉문이 있었다. 아울러 궁의 중요한 출입문으로 대정문이 있었다. 이 가운데 중광전과 구정, 위봉문, 대정문은 2차궁궐에서 그대로 이어져서 위봉문이 신봉문이 되었고 대정문이 태초문이 되었던 것으로 믿어진다. 그렇다면 고려 정궁은 이미 1차궁궐을 조성할 때부터 광명천의 물줄기를 따라 구정에서 대정문을 따라 서북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정전이나 침전이 조성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해진다. 그리고 2차궁궐의 상용부분은 바로 이 1차 궁궐의 기본배치를 그대로 계승해서 조성되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2차궁궐에서는 새롭게 구정을 중심으로 그 북쪽 방향으로 경사진 지형을 따라서 회경전과 장화전, 원덕전같은 특별한 의식이나 용도를 위한 건물군이 추가로 조성되었다는 추정을 하게 된다.

47 朝鮮總督府作成, 一萬分之一朝鮮地形圖集成, 栢書房(東京), 1984

5. 건물배치에서 본 고려 정궁의 특징

지금까지 확인이 가능한 건물 배치 만을 보아도 고려 정궁은 배치상의 몇 가지 특징을 보인다. 우선 중요 건물들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열되는 것이 아니고 지형에 따라 축을 달리하면서 배치된다. 궁의 기본적인 진입방법 역시 중심축을 따라 진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남 쪽에서 북쪽으로 직각으로 꺾이는 방식을 반복한다. 그 결과 고려 정궁은 그 이전 삼국시대의 궁궐이나 발해의 궁궐 배치와 전혀 다른 모습을 만들어 냈다. 이런 점에서 고려 정궁은 이전 시대 궁궐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배치 개념을 갖고 만들어진 건축이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고려 정궁의 첫번째 특징은 중요 건물이 남북 일직선상에 배치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궁의 중심 전각인 정전과 편전, 그리고 침전등은 전후관계로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다. 비교적 직선축을 살리고 있는듯이 보이는 회경전과 그 뒷편의 장화전, 원덕전등의 경우도 약간 동쪽으로 틀어져 있다. 건덕전과 선정전 그리고 중광전의 경우도 아직 명확히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전후로 나란히 배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무엇보다 제1정전인 회경전과 제2정전인 건덕전이 일직선상에 놓이지 않은 점이 전체 궁궐건물의 배치를 직선축과는 다른 형태로 만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 특징은 진입방식에 있다. 황성의 남문은 주작문이지만 이 문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만 지녔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 궁의 주 출입문은 동남 모서리에 위치한 광화문이었다. 이 문에서 서편으로 가다가 북쪽으로 꺾여서 승평문을 지나 궁성에 들어선다. 여기서 북쪽으로 향하면 회경전으로 향하고, 다시 서쪽으로 해서 태초문을 지나가다가 북쪽 방향으로 가서 건덕전에 이르는 것이 주 진입방향이다. 이것은 중앙 한 가운데를 통해서 남북직선축을 따라 진입하는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독특한

진입방식이다.

고려 정궁의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은 무엇보다도 정궁이 놓인 그 지형조건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여기에 1차궁궐이 조성되고 나서 다시 현종5년 이후 2차 궁궐이 조성되면서 새로운 중심 시설이 조성되는 과정에서 독특한 점이 더 굳어졌다고 볼 수 있다.

고려가 도읍을 송악산 아래 정하고 또 궁궐터로 송악산 아래의 경사진 지형을 선택한데는 당시 왕실에 큰 영향을 주었던 풍수지리설이 작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만월대로 불리는 고려의 궁궐터는 서북쪽에서 동남으로 광명천이 흐르는 북쪽의 비교적 굴곡이 많은 지형이라고 한다. 이 지형을 그대로 살려서 광명천의 흐름에 맞추어 상용 궁궐부를 조성하고 나중에 동쪽의 급한경사지를 그대로 살려 회경전과 그 북쪽의 여러 전각을 지어냈다. 정궁의 굴곡을 이룬 진입방식은 바로 이와 같은 광명천의 흐름과 경사진 지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과라고 하겠다.

1차 궁궐이 조성된 이후에 그 기본 건물배치를 그대로 살려 상용 궁궐부로 두고 2차궁궐을 조성하면서 회경전을 중심으로 한 불교행사나 군사회의를 위한 건물을 새롭게 조성한 것도 궁궐의 전체 건물배치를 질서정연한 좌우대칭이나 직선축을 살린 형태와 다른 독특한 모습으로 만든 원인이었다고 생각된다.

한편, 고려 정궁을 그 이전 시대의 궁궐과 비교해 보면 고려 정궁의 독창적인 측면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고려시대 이전의 궁궐가운데 건물 배치의 윤곽이 파악된 것은 고구려의 안학궁과 발해의 상경 용천부 궁궐 정도를 들 수 있다.⁴⁸⁾ 두 궁궐의 전체 배치 모습을 보면 평탄한 지형위에 남북 직선축상에 중심 건물을

48 신라의 경우는 통일신라때 조성된 것으로 짐작되는 경주의 소위 성동리 유적이 있다. 중심부의 건물 배치가 좌우 대칭을 기본으로 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전체 윤곽이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 백제의 경우도 공산성내의 개별 건물지가 조사된 바 있고 부여에 대해서도 일부 발굴이 있었지만 그 전체 모습은 미지수이다.

일직선으로 배열하고 좌우 대칭을 이루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평양 대성산 아래 위치한 안학궁은 1970년대에 전면 발굴 조사가 이루어져 궁궐의 전체 배치 모습이 알려졌다.⁴⁹⁾ 발굴 보고서에 의하면

남북 직선축상에 세 개의 커다란 중심 건물을 두었고 북동 모서리에 또 하나의 독립된 건물군, 서쪽에 여러 개의 복합된 건물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다. 보고서에서는 중심축상에 있는 건물들을 남궁, 중궁, 북궁이라고 명명했다.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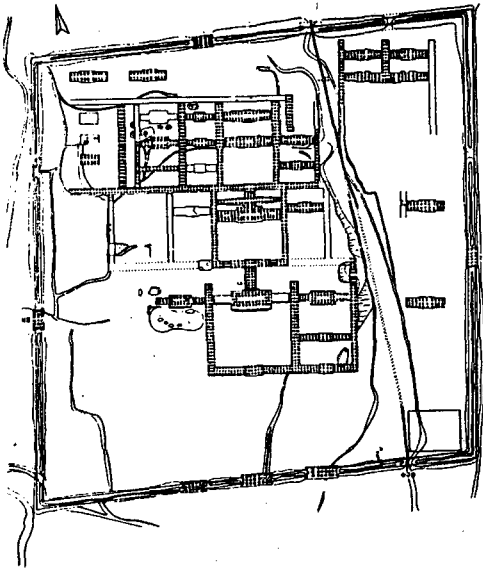


그림-6. 고구려 안학궁 배치도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옮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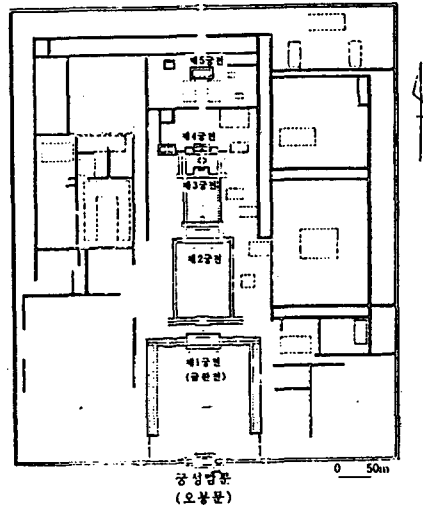


그림-7. 발해 동경성 궁선배치도
(김경표, 발해건축, 『한국건축사』, 대한건축학회)

안학궁은 대성산 아래 평탄한 지형에 자리잡았다고 한다. 남쪽으로 완만한 경사를 이루는데 남북 고저차는 약 2m라고 한다. 성벽은 1변 약 622m의 방형 이고 남면 중심부에 3개의 문이 있고 나머지 3면에 각 1개씩의 문을 냈다. 성 내에는 남면 가운데 출입문에서 북쪽 중심으로

중심 건물은 네모 반듯한 회랑으로 둘러쌓여 있고 건물 앞에 넓은 마당을 두었다. 전체적으로 보아 중심축을 강조하고 각 건물이 대칭적인 공간구성을 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생각된다.

49 발굴조사는 김일성종합대학에 의해 이루어졌고 대성산의 고구려유적이라는 보고서가 간행되었다. 보고서에 안학궁의 전체 궁궐 모습이 제시되었다. 보고서에서는 안학궁의 건립시기를 427년 평양으로 천도한 때부터 다시 대동강변으로 수도를 옮기기까지인 586년 사이의 기간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실제 노출된 유구나 기와편 등으로 미루어 건립연대는 더 후대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고 또 지상에 노출된 궁궐 모습이 일시에 조성된 것이 아니고 후대에 몇 차례 중축을 거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도 있다.(千田剛道, 『清岩里廢寺と安鶴宮』, 文化財論叢, 奈良國立文化財研究所創立30周年記念論文集刊行會, 東京, 1983)

고구려의 유민이 건국했다는 발해의 경우 궁궐 유적이 알려진 곳은 5개 도시중 상경의 용천부 궁전지가 유일하다. 상경 용천부는 1930년대에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가 이루어졌고 이후에 문헌을 통해서 각 유적의 건물명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졌다. 궁전은 직각으로 계획된 도시 북쪽 중심부에 위치하며 궁성 성벽 역시 네모 반듯하게 조성되어 있다. 도시 중심축을 이루는 남북 직선 중심 도로와 나란히 축을 맞추어 궁궐의 중심축이 설정되고 여기에 정문을

비롯해서 5개의 중심 건물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각 중심 건물들은 네모 반듯한 회랑으로 둘러싸여 있고 건물 앞에 넓은 마당을 두었다. 이들 중심축상의 건물외에는 비교적 불규칙한 모습의 여러 건물이나 회랑이 이어져 있는데 모든 건물들은 중심건물들과 평행을 유지한 모습이다.

안학궁과 상경 용천부 궁궐은 기본적으로 공통된 건물 배치 모습을 보인다. 네모 반듯한 성벽을 두고 남북 중심축상에 정문과 중심 건물을 나란히 배열하고 각 건물을 네모난 회랑으로 둘러싸 건물 앞에 넓은 마당을 두어 전체적으로 대칭 구성을 하는 점들이 그렇다.

여기 비해서 앞에서 살펴본 고려 정궁의 건물 배치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우선 궁의 중심 건물들이 일직선 상에 축을 맞추어 배열되지 않는다. 제1정전인 회경전과 상용 정전인 건덕전은 앞 뒤에 나란히 배치되지 않고 회경전의 서북 방향으로 건덕전이 비스듬히 놓인다. 나머지 왕의 침전인 중광전이나 편전인 선정전도 직선축상에 놓인다고 보기 어렵다. 진입 방식은 더 다른 모습을 보인다. 고려 정궁의 진입은 기본적으로 궁성 동남 모서리에 있는 광화문을 지나 직각으로 꺾어서 승평문을 거치게 된다. 승평문 뒤의 신봉문을 들어서서는 회경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계속 북쪽으로 진입하지만 건덕전이나 그 밖에 일상적인 궁궐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봉문 서쪽의 대초문을 지나 다시 북쪽으로 꺾어서 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점에서 고려 정궁은 궁궐 배치에서 그 이전과는 전혀다른 새로운 형태를 창출한 궁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고려 정궁은 궁궐건축에 하나의 새로운 형식을 창출한 건축이었다고 평가된다.

6. 맺는글

현종대에서 인종대사이의 『고려사』 기록을 통해서 고려 정궁을 구성하는 중요한 전각을

살펴본 결과, 정전 건물과 편전건물 그리고 내전에 속하는 왕의 침전, 왕비전, 왕대비전과 그 부속건물 여러동의 건물명을 정리할 수 있었다. 그 밖에도 동궁에 속하는 건물과 궁궐내 왕실 제사용 건물 및 관청등의 명칭을 파악하였다.

11,12세기 고려 정궁을 구성하는 건물가운데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정전이 두 곳으로 나뉘어진 점이었다. 즉 대규모 불교행사나 왕이 참가하는 기우제를 지내고 송나라 사신의 영접에만 한정해서 사용하는 회경전과, 왕이 정기적으로 신하들의 조하를 받고 특별한 때에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푸는데 사용한 상용 정전으로 건덕전을 마련한 점이다. 실제 『고려사』에서는 건덕전에 대해서 정전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용례도 확인하였다.

정전을 두 곳에 둔 원인은 불교를 숭상한 왕실의 관습에 기인하였다고 보았다. 통상적 기능을 갖는 정전외에 따로 궁궐내에 대규모 불교행사를 치를 수있는 정전이 필요해 졌기 때문이다. 통상적인 정전이 고려 정궁의 창건시부터 존재해 왔던데 비해서 대규모 불교행사를 치르는 회경전이 궁궐에 지어지게 된 것은 현종5년의 궁궐재건 이후로 추정하였다.

건물의 배치를 보면, 현재 만월대로 알려진 회경전과 그 후방의 경사지에 조성된 2,3건물터가 대규모 불교행사나 외교의례 및 군사회의와 같은 특별한 기능을 위한 영역이었던데 비해서 그 서북편의 평탄한 지형 일대에 상용정전과 편전 및 내전이 있는 궁의 중심부가 놓여있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궁의 중심부는 회경전의 서북 방향에 있었다. 건덕전이 중심부에 위치하고 그 좌측에 편전인 선정전이 있으며 선정전 뒤로 내전의 중요건각들인 왕의 침전과 왕비전, 왕대비전이 놓여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건덕전의 동편 북방 지역은 왕의 편전이나 금원의 건물 일부가 놓여 있었다. 회경전의 동편에 동궁전이 마련되어 있었고 제사용 건물이 내전의 서쪽 일대에 자리잡았다고 추정하였다.

송악산 아래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흐르고 있는 광명천은 궁의 건물배치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편전인 선정전의 남문이 광명천에 면해 있었고 건덕전으로 통하는 통용문인 태초문과 광화문이 각각 광명천 곁에 놓여있었다. 이 물줄기 윗편의 평탄한 곳에 궁의 중심부가 자리잡았던 것으로 보았다.

조성과정으로 보아 창건시부터 이 광명천을 따라 구정에서 신봉문, 그리고 태초문을 지나 서북 방향으로 건덕전을 비롯한 궁의 중심부가 형성되었고 현종5년의 재건 이후에 신봉문의 북방 경사진 지형을 좇아 회경전과 그 후방의 몇몇 건물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하였다.

정궁의 외곽에는 자연 지세를 살려서 바깥 울타리로 황성을 쌓고 다시 내부에 궁성을 쌓는 이중의 성벽을 두었으며 황성의 주 출입문은 동남 모서리에 놓인 광화문이었고 정문에 해당하는 남쪽의 주작문은 단지 상징적인 문에 그쳤다. 궁성에서는 남문인 승평문이 정문이었다.

고려 정궁의 기본적인 건물배치는 비대칭적인 특징을 보였다. 또한 황성의 정문에서 상용 정전이나 내전으로 향하는 진입은 서쪽으로 향하다가 북쪽으로 몇번씩 꺾이는 굴곡된 방식을 취하고있었다. 이러한 비대칭적인 배치와 굴곡된 진입방식이 나타난 배경에는 정궁이 놓인 자연지형의 특수한 여건이 작용하였다고 보았다. 특히 광명천의 물줄기를 따라 궁의 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 당초 궁의 상용 영역이 조성되고 난 이후에 대규모 불교행사와 같은 특수한 목적으로 회경전 일곽이 새롭게 조성되게 된 것도 궁궐의 배치를 비대칭으로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 그 결과 고려 정궁의 건물배치는 이전의 고구려 안학궁이나 발해 동경성의 궁궐에서 보는 대칭과 직선 진입 방식과 전혀 다른 독특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고려 정궁은 궁궐 건축의 새로운 독창적인 면을 창출한 건축으로 평가될 수 있다.

참고문헌

- 高麗史
 新增東國輿地勝覽
 宣和奉使高麗圖經
 前問恭作, 開京宮殿簿, 朝鮮學報 第26輯, 1963
 高裕燮, 韓國建築美術史草稿, 考古美術資料 第6輯, 考古美術同人會, 1967
 高裕燮, 松都의 古蹟, 열화당, 1977
 국역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회간, 1981
 許興植, 韓國金石全文, 亞細亞文化社, 1984
 張慶浩, 韓國의 傳統建築, 문예출판사, 1989
 리화선, 조선건축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평양), 1989
 정찬영, 만월대유적에 대하여(1), 조선고고연구 1, 1989
 朴龍雲, 고려시대 開京 연구, 一志社, 1996
 尹張燮, 韓國의 建築,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Building Composition and Site Layout of the Main Palace of the Koryo Dynasty in the 11th and 12th century

Kim, Dong Uk
(Professor, Kyonggi University)

ABSTRACT

There are two main halls in the Main Palace of the Koryo Dyansty in the 11th and 12th century. One, named Hoekyongjeon, was served only for special ceremony ; hundred Buddhist priests' sermons or reception of Chinese emperor's letters. The other one, Kondukjeon, was used as ordinary throne hall. The ordinary throne hall was built when the palace was erected at the beginning era of the Koryo Danasty, while the special ceremony hall built after the reconstruction in the 11th century. The throne hall was located at northwest side of the special ceremony hall. Audience chamber and King's bedroom were located at west and northwest side of the throne hall. The basic layout of the Palace showed unsymmetrical shape. It seemed mainly effected by its undulating terraine. The acess road from main gate to the throne hall showed zigzag way, by following a stream penetrating the site obliquely. It could be said that the Main Palace of the Koryo Danasty achieved its originality on the aspect of unsymmetrical layout and zigzag acess road, which was not found in the former palaces.